

11월 22(월) / 엽 1-3

▶ **내용요약** :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다.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또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다.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경륜과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각각 채우시오. (2장)  
“너희는 그 ( )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 )이라”

▶ **생각하기** :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직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11월 25일(목) / 골 1-4

▶ **내용요약** :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다.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와 영광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교훈했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권면했다. 특히 믿음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면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등 학문에 현혹될 수 없는 것이다. 3장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했다.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깨어 있도록 권면한 후에 사랑과 격려의 인사로 편지를 맺었다.

▶ **질문** : 바울은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는가? (4장)

▶ **생각하기** :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또한 진리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11월 28일(일) / 딤후 1-3

▶ **내용요약** :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목회서신이다. 1장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신화와 족보 등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을 주의하도록 경계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도 같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것임을 고백했다.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11월 23일(화) / 엽 4-6

▶ **내용요약** : 에베소서 4-5장에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권면했다. 성도는 겸손과 온유, 인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며, 잠자는 이들을 향한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술 취하지 말도록 경계하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도록 교훈했다. 한편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 관계는 사랑과 존중, 복종의 태도로 나타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에 대해 말한 후,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도록 경계했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5장)  
“( )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 **생각하기** : 죄로 인해 깨졌던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구원과 회복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자.

11월 26일(금) / 살전 1-5

▶ **내용요약** :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 즉 환난 가운데에서 보여준 신앙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어서 2절에서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복음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자 기쁨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접했고, 그것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격려하며 기도했다.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교훈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5장에서 바울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권면하며 편지를 마쳤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 )이라”

▶ **생각하기** :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다.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자.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도록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했다. 그리고 이단이나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질서와 전통을 설명해주었다. 3장에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그 직분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분별하고 또한 교육해야 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11월 24일(수) / 빌 1-4

▶ **내용요약** :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다. 1장에서 바울은 성도들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고백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격려할 수 있었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겸손할 것을 교훈했다. 그리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교훈했다. 3장에서 바울은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궤대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편지를 마쳤다.

▶ **질문** : 아래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채우시오. (2장)  
“너희 안에 이 ( )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 )이니”

▶ **생각하기** :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자.

11월 27일(토) / 살후 1-3

▶ **내용요약** :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격려하며 권면했다. 한편 2장에서 바울은 배교하는 일과 곧 나타날 멸망의 아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여 성도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리고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말과 편지 받은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도록 교훈했다. 마지막 3장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라고 명령하며 편지를 맺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3장)  
“형제들아 너희는 ( )을 행하다가 ( )하지 말라”

▶ **생각하기** :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와 성도는 수많은 신앙적 유혹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흔들리며 자신의 신앙을 저버린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도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전통 안에서 신앙의 인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한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2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 )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생각하기** : 오늘날은 참된 스승과 제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어쩌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는 큰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따르며,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믿음의 스승이 되자.